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 회 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에 정착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북한이탈주민 10명 및 북한이탈주민과 교류 경험이 있는 남한주민 10명을 대상으로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의 교류 경험은 17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군, 3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3개의 범주는 각각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변화된 측면'으로 명명하였다. '긍정적 측면'은 '따뜻함'이었으며, '부정적 측면'에는 '거리감', '불신감', '억울함', '부담스러움' 등의 4개 주제군이 포함되었고, '변화된 측면'은 '교류를 통한 깨달음'이었다.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은 25개의 주제와 9개의 주제군, 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긍정적 측면'은 '호기심'과 '동정심'이었으며, '부정적 측면'은 '거리감', '불편감', '거부감', '조심스러움', '실망감'이었고, '변화된 측면'은 '교류를 통한 변화'와 '교류를 통한 깨달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이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교류 경험, 편견, 현상학적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4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2014S1A5A8018722).

† 교신저자 : 김회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58245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Tel : 061-330-3535, Fax: 061-330-3538, E-mail : kimhk@dsu.ac.kr.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했다. 2014년 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7,500명이다(통일부, 2015). 이처럼 최근 20여 년에 걸쳐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일상 생활이나 직업적인 관계들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기회들도 많아졌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의 삶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남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9,49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7.3%가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1%였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나 남한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인진과 채정민(2010)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문화와 풍습, 지식과 경험, 북한출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남한의 문화와 풍습, 남한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남한의 사회문화에 동화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은 처음에는 남한에서 풍족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한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잘못된 기대와 이로 인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민성길, 전우택, 김동기, 2006; 박미석, 이종남,

1999; 조영아, 2012). 남북한 간의 언어나 언어 표현 방식의 차이, 상이한 직장 문화 등은 직업적응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은숙, 2014; 조정아, 정진경, 2006).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희경, 신현균, 2010;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방성이나 친절, 진실함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나 결혼이민자에 비해서도 친밀감을 낮게 지각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주민에 대한 인식도 다르지 않다. 남한주민들과의 접촉을 꺼리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남한주민들과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았다(윤인진, 채정민, 2010). 이러한 부정적인 상호인식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관계 형성이나 교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해숙과 이현숙(2014)에 따르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외모나 성격적으로 균형적이지 못한 사람이며, 돈에 집착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기피하고 차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정형화하여 백안시하며, 자신들을 냉대하고, 기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호 인식을 탐구하였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으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만남에 바탕을 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교류 경험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방안으로 서로 간에 교류 빈도를 늘릴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가 서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키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주은주(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자주 만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이라는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자주 만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감, 수용의 정도가 증가하지만, 가족을 이루어 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이수정, 양계민, 2013).

북한이탈주민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직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차이를 보였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높은 신뢰와 수용을 보인 반면, 신변보호담당 형사들은 부정적인 인지와 정서가 강했으며 신뢰와 수용의 정도도 낮았다(양계민, 정진경,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가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곧 북한이탈주민을 내집단으로 수용하거나 신뢰감을 상승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 뿐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상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는 대부분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이 남

한주민에게 갖는 친밀도의 수준은 인사하는 정도이며, 남한주민을 매우 믿고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는 드물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의 태도가 자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78.3%는 이웃과의 관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남한의 이웃과 일주일에 1회 정도로 교류를 하는 비율은 38.3%에 머물렀다(윤여상 등, 2005).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서 남한의 이웃이 차지하는 의미도 크지 않다. 이재민과 황선영(2008)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호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할수록 남한사회 적응도가 높았지만, 이웃은 남한사회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나 남한주민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와 실제 남한주민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질이나 깊이는 다를 수 있다.

이민자나 난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교류하고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Jacob, 1994; Takeda, 2000). 북한이탈주민에서도 주변의 지지나 사회적 교류는 삶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 정신건강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측변수이다(김성준, 2009; 김재엽, 최지현, 류원정, 2012; 이태희, 2003; 임지영 등, 2010).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원천도 대부분 민간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공식적인 경우가 많았고, 남한친구나 이웃으로부터 지지를 경험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김성준, 2009; 유시연, 2001).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확인한다면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사람의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의 무시에 대한 인식 정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재민, 황선영, 2008). 남한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도 촉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양성과 다인종의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집단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집단과 소수 집단이 보이는 서로 다른 심리과정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 내적 특성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 교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교류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연구 대상도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 중 어느 한 쪽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호 인식을 동시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이나 지원 방안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하고 우리사회에 적응시켜야할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변화의 주체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센터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북한이탈주민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상담자는 상담과 교육, 조력자의 역할들을 다양하게 수행한다(최운정, 2015). 하지만, 북

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숙, 조선희, 2012).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교류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서로의 공존을 위한 상담적 대안 마련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실제 교류 경험을 이들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 교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관계 형성 및 교류를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대인지각 특성이나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는 측면들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제안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과의 교류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둘째,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셋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이다.

방 법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한에 1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과 교류 경험이 있는 남한주민으로서, 총 20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구 주제 및 목적에 맞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무자를 통해 참여자를 일부 추천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얻었다. 연구에 동의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남한주민과의 교류 경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추천 받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0명이었으며, 여성이 9명, 남

성이 1명이었다. 참여자 연령은 21세부터 45세까지였다. 참여자들의 남한 거주 기간은 1년에서 6년까지였으며, 미혼이 4명, 기혼이 6명이었다. 10명의 참여자들 중 직업이 있는 사람은 6명이었으며, 8명이 종교를 갖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교류하는 남한주민은 직장동료나 교인, 대안학교 교사, 민간단체 활동가 및 학원이나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남한주민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이었으며, 남한주민들과 일대일로 사적인 모임이나 만남을 가지기 보다는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된 여러 명의 남한주민들과 함께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한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전화를 주고받거나 직접 접촉하면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교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연구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및 관계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북한이탈주민)

참여자	성별	나이	학력	남한 입국년도	거주지	결혼상태	직업 유무	종교 유무
1	여	21	고졸	2012년	서울	기혼	유	무
2	여	40	대재	2011년	경기	미혼	유	유
3	남	45	대졸	2013년	인천	기혼	유	무
4	여	30	고졸	2011년	서울	미혼	무	유
5	여	26	대재	2008년	경기	미혼	무	유
6	여	29	대재	2011년	서울	미혼	무	유
7	여	44	고졸	2012년	서울	기혼	유	유
8	여	32	고졸	2011년	부산	기혼	유	유
9	여	42	대학중퇴	2012년	경기	기혼	유	유
10	여	22	고졸	2011년	서울	기혼	무	유

표 2.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남한주민)

참여자	성별	나이	학력	거주지	결혼상태	직업 유무	종교 유무
11	남	28	대재	경기	미혼	무	유
12	남	24	대재	서울	미혼	무	유
13*	여	25	대졸	경기	미혼	유	무
14	남	30	대졸	경기	미혼	유	무
15*	여	34	대졸	서울	미혼	유	무
16	여	29	대졸	서울	미혼	유	유
17*	남	52	대졸	경기	기혼	유	무
18	여	29	대졸	서울	미혼	무	유
19*	남	39	대학원 재학	서울	미혼	유	무
20*	여	44	대졸	서울	기혼	유	유

주. 참여자 오른쪽 위에 표시된 *은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임

기관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고 있는 남한주민을 추천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얻었다. 연구 당시 또는 과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에서 활동한 경우는 직업적인 관계 외에 일상생활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교류 경험이 확장된 사람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남한주민은 총 10명이었으며, 남성과 여성 각 5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4세부터 52세까지였으며, 기혼이 2명, 미혼이 8명이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한 기간은 1년 내외가 2명, 2년 내외가 2명, 3년에서 5년이 5명, 10년 이상이 1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교류를 시작한 계기는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나 캠프에 참여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가 3명,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명, 직업적인 교류로 시작하여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교

류를 하고 있는 경우가 5명이었다. 이 중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족구성원인 경우와 연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각 1명씩 포함되어 있다. 교류 빈도는 매일에서부터 월 1회 내외까지 다양했지만, 대부분 주 1회 이상 만나고 있었으며, 전화 연락은 수시로 주고받는 상태였다. 남한주민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와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비밀 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 면접 내용의 녹음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 이후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전화 접촉이나 면접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였으며, 면접 내용

의 필사본은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였고, 그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였으며,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90분에서 120분 정도씩 1~2회 실시하였다. 면접 장소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편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집이나 참여자 거주 지역 근처의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심층 면접은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질문 형태를 사용하였다. 먼저, “평소에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하십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로 무슨 목적으로 만나시나요?”,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지요?”, “친하거나 가깝다고 생각하는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진술을 시작하였고, 참여자의 진술 흐름에 따라서 부가적인 질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서 북한이탈주민(남한주민)으로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던가요?”, “남한주민(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던가요?” 등이었다. 참여자

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흡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확인하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메모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녹음한 후 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은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기술하고, 인간의 경험에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Polkinghorne, 1989).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참여자 전체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 교류 경험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부합된다고 보았다.

필사한 자료는 Colaizzi가 제안한 6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을 심층 면접한 후 필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한 의미 진술을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와 주제군(theme cluster)으로 분류하고, 주제군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범주화하였다. 5단계에서는 주제와

주제군에 따라 경험의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6단계에서는 주제들을 통합하여 경험의 공통적인 요소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성적 성찰(researcher reflexivity)과 참여자 확인(member checking), 동료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Creswell & Miller, 2000). 반성적 성찰은 연구자의 주관적 신념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의 가정, 신념, 편견을 통제하려고 필사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었으며, 자료 분석 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메모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두 번째로, 참여자 확인을 위해 연구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그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 번째로, 분석 자료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 및 상담 경험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2인이 분석 자료 검토와 합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전술한 과정에 대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심리전문가이자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과 간호학 전공 교수 1명에게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결 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의 교류 경험

Colaizzi의 분석방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의 교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총 123개의 의미 진술문이 도출되었고, 이를 구성된 의미에 따라 17개의 주제와 7개의 주제군으로 분류하였으며, 3개의 범주로 유목화하

였다. 3개의 범주는 각각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변화된 측면'으로 명명하였다. '긍정적 측면'은 '따뜻함'이었으며, '부정적 측면'은 '거리감', '부담스러움', '불신감', '억울함'이었고, '변화된 측면'은 '교류를 통한 깨달음'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의 교류 경험은 표 3과 같고, 각 주제군을 중심으로 드러난 주제들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따뜻함

주제군 1은 '따뜻함'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과의 교류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측면이었으며, '위로와 배려', '먼저 다가옴'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입국하는 과정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알아주면서 남한주민들이 용기의 말을 건네고, 북한에서 왔다고 특별 취급을 하지 않을 때, 경제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줄 때 위로받고 있었다. 또한, 남한주민이 먼저 말을 걸고,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은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열게 하였다.

“몸이 아플 때 약도 사다 주시고, 아이 봐서라도 대한민국에서 꼭 버티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 금지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못 살 것이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북에 있는 부모 때문에 올 때는 함께 울어도 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보면서 나라는 갈라져도 마음은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9)

“주말이 되면 우리 집에 오기도 하고, 식당에도 함께 가요. 명절마다 집에 와주

표 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의 교류 경험

범주	주제군	주제	구성된 의미
긍정적 측면	따뜻함	위로와 배려	북한에서 왔다면 위로와 용기의 말을 건네니 힘이 남 북한에서 왔다고 특별 취급하지 않으니 편함 경제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으니 가깝게 느껴짐
		먼저 다가옴	먼저 말을 건네니 마음을 열게 됨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니 나도 표현하게 됨
	거리감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	북한은 직설적인데, 남한은 빙빙 돌려서 말하니 속을 알 수 없음 거칠고 악센트가 높은 북한식 말투 때문에 오해를 삼
		낮선 언어	영어 섞인 말을 알아듣지 못해 대화에 끼기 어려움 일상적이고 쉬운 용어들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
낮선 환경		서로 공통적인 경험이 없으니 공감하기가 어려움 계산적인 디지털이 문화 때문에 당황함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이 자기 일만 챙기니 서운함	
피상적인 관심		서로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 성실성의껏 대하지 않음 북한사람은 남한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멀게 느껴짐	
부정적 측면	부담스러움	자격저심	남한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괜히 남한사람의 눈치를 봄 자존심 때문에 몰라도 물어보지 않음 같은 탈북자지만, 탈북자가 싫음
		자기 노출에 대한 갈등	모르는 것을 들릴까 이야기하기를 꺼림 말투 때문에 신분이 드러날까 말하기를 꺼림
		여유 없음	서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울리기 어려움 받은 만큼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받는 것이 부담스러움
		지나친 관심	호기심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꼬치꼬치 캐물으니 힘들 위로한다고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음
		태도변화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 전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보며 믿지 않게 됨 간첩사건 소식 이후 이상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겉으로만 가까운 척 했다는 것을 알게 됨
		불신감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헐뜯는 것을 보고 속내를 숨기게 됨 입에 바른 소리나 과도한 반응이 진실으로 느껴지지 않음
억울함	무시당함	배신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 믿지 않게 됨
		못 먹고, 못 배운 사람 취급을 당함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 서운함 남한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분함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아 화가 남
		일반화에 의한 편견	언론매체에 나온 정보로만 북한 사람을 판단해서 속상함 한 사례만 보고 싸잡아 평가하는 것 같아 답답함
		인내	상처가 약이 됨 시간이 필요함
변화된 측면	교류를 통한 깨달음	노력	열심히 배우고 일해야 함 남한사회에 맞추어야 함 먼저 다가가야 함 서로 이해하고, 어울려야 함

시고, 아이한테도 옳은 말들을 많이 해주
세요. 모든 근심이 없게끔 처지를 해주세
요.”(참여자 9)

“제 마음은 대화를 하면 속을 주고 싶
은데, 그 사람도 제 눈치를 보며 빙빙 돌
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하다보
니까 나도 소통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저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도 데려
갔어요. 말하다보니 탈북자라는 것도 알
게 되었고요.”(참여자 2)

거리감

주제군 2는 ‘거리감’으로서, ‘언어표현 방식
의 차이’, ‘낮선 언어’, ‘낮선 환경’, ‘피상적인
관심’, ‘자격지심’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언어나 문화
차이, 상호작용의 깊이 등으로 인하여 북한이
탈주민이 남한주민을 이질적이고 멀게 느껴지
는 사람이라고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많이 사
용하는 영어 표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남한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쉬운 단어도 잘 알
아듣지 못해서 눈치를 보거나 대화에 잘 참여
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나 생각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비해 남한
주민들은 빙빙 돌려서 말을 하니까 속을 알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고, 거칠고 악센트가
높은 북한식 말투 때문에 남한주민들과 대화
할 때 신경을 쓰고 있었다.

“남조선 말이라는 것이 절반이 다 영
어잖아요. 저희는 영어라는 영자도 모르
고 왔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야 그 분들 이야기에 끼우잖아요. 그냥
대충은 아니까 그 분들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그렇고... 사람이 같이 모여
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해도 내가
알아듣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다 영어
로 부르니까...”(참여자 2)

“남한사람들은 뒤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앞에서는 아주 잘 들어줘요. 북한사
람들은 기분이 나쁘면 직설적으로 표현
을 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서나 남한사람들이랑 만날 때에는 그 표
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참여자
5)

“원래 북한사람들이 악센트가 되게 높
거든요. 소리가 너무 크거나 정신 사납거
나 하면 상대방이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
어 하시더라고요. 뭔가 싸우는 것 같고,
불만을 표출을 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요.”(참여자 6)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공
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었고, 더치페이 문화나 자기의 일
만 챙기는 남한의 문화도 낯설게 여기고 있었
다. 또한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보다는 피상적인 관심
만 보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교류를 하기 어
렵다고 느끼고 있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남한주민이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같은 고향 친구들과하고 만나면 공유하

는 부분이 많으니까 대화가 잘 통하는데, 남한친구들하고 만나면 경험했던 것들이 다르니까 안타까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5)

“한국친구들은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줬다는데 안 된다면서 자기들도 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그런 반응을 하니까 친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참여자 10)

“남한사람들은 내 일 아니면 남 일에 간섭을 하지 않아요. 북에서는 힘든 일일 수록 빨리 끝나는 사람이 늦어 끝나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이랬어요.”(참여자 3)

“동네 분들은 얼굴이나 알아요. 동네사람들하고 북한처럼 그렇게 따끈한 풍토는 없는 것 같아요. 남한이라는 거는 옆집에서 문을 두드려도 내다보지 않더라고요.”(참여자 2)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문화 차이 때문에 자기들이랑 생각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요. 북한사람은 남한사람하고 생각이 틀리다. 그래서 너희는 힘들다.”(참여자 6)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도 남한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만드는 요소였다. 남한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자신들이 남한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자존심 때문에 몰라도 물어보지 않았

고, 동료 탈북자들에 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언론 등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는데 괜히 저희 쪽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는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참여자 1)

“북한사람들은 자존심이 진짜 세요. 모르면 자존심을 굽혀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 보면 그것도 모르냐고 하니까 그런 비아냥거림을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안 물어봐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보면 자기만 손해죠.”(참여자 5)

“뉴스에서 탈북자가 어찌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돼요. 내가 뉴스를 안 보게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할수록 사실 더 티가 나잖아요. 얼굴을 들지 못하겠고, 얼굴이 좀 뜨끔뜨끔해요.”(참여자 4)

부담스러움

주제군 3은 ‘부담스러움’으로서, ‘자기 노출에 대한 갈등’, ‘여유 없음’, ‘지나친 관심’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지식이나 신분이 드러날까 염려하여 말하기를 꺼려하며,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남한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애들이 물어보면 무섭고 두

려웠어요.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모르나
고 할까봐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참
여자 1)

“말투가 다르니까 누가 나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볼 것 같아서 말을 안 하
게 되더라고요.”(참여자 2)

“딱 와서 학원에 다니니까 좋은 식당
에 가서 먹을 재정적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김밥이나 한 줄 먹고 그러
다보니 사람이 떨어져 가더라고요. 딱 갈
라지더라고요.”(참여자 2)

“나는 그 분들한테 언제 만나서 식사
하자고 할 정도가 못되었어요. 자식도 키
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밥 한 끼
사주면 내가 또 한 끼 사야 되잖아요.”(참
여자 9)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지나치게 꼬치꼬치
캐물으며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도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
민에게 해주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위로의 말
도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
가 많았다.

“탈북자라고 하면 거기서 살았던 것에
대해 막 질문을 해요. 관심을 많이 가져
요. 그냥 자기네 궁금한 것들 질문을 하
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참여자 4)

“그렇게 해서는 대학교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를 걱정해서 애

기를 한 것인데, 저한테는 정말 기분 나
쁘게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해서 간절하게 가고 싶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참여자 1)

불신감

주제군 4는 ‘불신감’으로서, ‘태도 변화’, ‘가
식적인 태도’, ‘배신감’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남한주민을 믿지 못하는 것과 관
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자신들을 대
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남한사람들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입에 바른 소리를 하거나 타
인의 언행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
에 가식적으로 느껴져서 믿기 어려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향이 어디냐고 해서 북한에서 왔다
고 했더니 찬바람이 썩썩 불더라고요. ‘사
람이 왜 저러지?’ 할 정도로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생각도 해보았고, 일도 못한 것
이 없는 것 같은데, 말투가 딱 바뀌는 거
예요.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하고... 완전
바보같이.”(참여자 8)

“한동안 친하게 다녔는데, 탈북자들 간
첩 사건 나오니까 속에 있는 소리를 하
더라고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까 그 애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고 했다
고요. 그 순간에는 남조선 사람들이 밉더
라고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합체 못
지겠구나. 그냥 곁에 발랐구나’ 생각했어
요.”(참여자 2)

“평상시에 앞에서 볼 때는 되게 친해 보이던데, 뒤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나도 뭔가 잘못하면 재네들이 뒤에서 뭐라고 할 거라는 느낌이 드니까 주의하게 되었어요.”(참여자 4)

“남한 여자 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크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못 본 사람을 저렇게 반가워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닿지 않았어요. 안 보던 것이고, 몸에 배지 않아서 그런지 진심이 없는 가식처럼 느껴져요.”(참여자 2)

“제 얘기를 다하고, 그토록 가깝게 지냈는데, 별일 아닌 것에도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대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죠.”(참여자 10)

억울함

주제군 5는 ‘억울함’으로서, ‘무시당함’과 ‘일반화에 의한 편견’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 분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을 못 먹고 못 배운 사람 취급한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북한사람이라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거나 남한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북한사람이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저한테 ‘북한은 이런 것도 없는데 왜 안 먹어?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된 거예요. 진짜 거지가 못 먹다가 온 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참여자 8)

“제가 행실이 나쁘거나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왔다는 조건 하나로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왔다는 것 하나로 싫어하니깐.”(참여자 5)

“탈북자가 사기치고, 범죄 저지르고,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간첩 사건 나고 하니깐 ‘우리가 기껏 세금을 들여서 데리고 왔더니 저렇게 못된 짓만 한다’고 말하더라고요.”(참여자 2)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한의 최저 임금이 120만원인데, 저는 아직 남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100만원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북한사람이기 때문에 차별한다고 생각했죠.”(참여자 9)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에 관해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정보를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판단하거나 특정 사례에 기초해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싸잡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하고 억울해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TV 프로그램

램을 보면서 ‘아! 북한사람들은 저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랑 문화가 너무 다르고, 마치 우주에서 온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참여자 6)

“한 사람이 잘못하면 새터민이라는 글자만으로 잘못된 것이 연결되어서 ‘아! 새터민이니깐 너도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말해요.”(참여자 4)

교류를 통한 깨달음

주제군 6은 ‘교류를 통한 깨달음’으로서, ‘인내’와 ‘노력’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남한주민에게서 받은 상처가 오히려 남한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게 보면 거기서 내가 그런 스트레스 받은 것이 도움도 됐어요. 내가 처음부터 잘 되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좋게 해주었으면 이렇게 적응이 안 되었을 거예요.”(참여자 7)

“일주일 지나고 열흘 되고 한 달 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부터 다가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했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8)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해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인정할 때까지.”(참여자 9)

또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일해야 하며, 자신들의 습성을 고수하기보다는 남한사회에 맞추어야 하고, 남한주민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어울리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왔으면 여기 환경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것이 맞는다며 생각을 열지 않으면 결국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참여자 1)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니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나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관심을 보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더 가깝게 지내고 친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9)

“초기에는 북한친구들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불편해도 남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고,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참여자 5)

“기초적인 것도 왜 모르냐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도 오랜 동안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잖아요. 그 안타까움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2)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총 203개의 의미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된 의미에 따라 25개의 주제와 9개의 주제군으로 분류하였고, 3개의 범주로 유목화하였다. 3개의 범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변화된 측면'으로 명명하였다. '긍정적 측면'은 '호기심'과 '동정심'이었으며, '부정적 측면'은 '거리감', '불편감', '거부감', '조심스러움', '실망감'이었고, '변화된 측면'은 '교류를 통한 변화'와 '교류를 통한 깨달음'이었다.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은 표 4와 같고, 각 주제군을 중심으로 드러난 주제들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기심과 동정심

주제군 1과 2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측면으로서, '호기심'과 '동정심'이었으며, '신기함', '순수함', '불쌍하고 안타까움'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고,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남한주민은 북한에서 온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으며, 탈북자를 접한다는 사실 자체를 신기하게 여기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북한이탈주민의 행동이나 말을 순박하고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상처가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며, 열심히 노력해도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강을 건넜으며, 남한까지는 어떻게 왔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참여자 16)

“처음에 딱 만났는데 신기했어요. 그냥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깐 신기했어요.”(참여자 12)

“사람들이 되게 순수해요. 어떤 것들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참여자 14)

“어떻게 보면 언어의 차이가 이들의 순수함, 고유함을 느끼게 하고, 단어 같은 것들이 되게 재밌고 좋아요.”(참여자 12)

“한국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이려고 외래어를 막 섞어 쓰는 것을 보면 피곤함을 느끼는데, 탈북자들이 외래어를 하나도 섞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언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참여자 13)

“처음 봤을 때 ‘아 도와줘야겠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었죠.”(참여자 15)

“무조건적인 동정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도와줘야 되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20)

거리감

주제군 3은 '거리감'으로서, '마음의 벽', '북한식 습성', '강한 결속력', '빈약한 현실 인식'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표 4. 남한주민의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경험

범주	주제군	주제	구성된 의미
긍정적 측면	호기심	신기함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궁금하고 신기하여 끝림 탈북자를 접한다면 다들 신기하다고 말함
		순수함	순진하고 때 묻지 않은 것이 순수하게 느껴짐 북한의 말이나 단어 자체가 신선함
	동정심	불쌍하고 안타까움	상처가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니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 열심히 노력해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
		마음의 벽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니 다가가기 쉽지 않음 마음을 열고 다가가도 마음을 열지 않으니 멀게 느껴짐 스스로 거리를 두기 때문에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함
부정적 측면	거리감	북한식 습성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을 보고 다르다고 느낌 자식은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차이를 느낌 남한에 와서도 북한식으로만 하려고 하니 다르게 보임
		강한 결속력	탈북자들끼리만 어울리는 것을 보면 우리와는 어울리려는 의지가 없어 보임 한정된 정보로 판단하면서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 답답함
		빈약한 현실 인식	현실을 모르면서 불만을 토로하니 답답함 계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니 난감함
	불편감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	둘러서 말하지 않고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당황함 큰 목소리와 거친 말투 때문에 꺼려짐
		언어의 차이	북한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서 말이 통하지 않음 간단한 단어들도 이해하지 못하니 대화 가 잘 되지 않음
		행동방식의 차이	전화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곤혹스러움 자기주장만 앞세우니 말을 하기가 싫음 갑자기 화를 내거나 돌변해서 당황함
	거부감	우리의 선입견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편하게 대하기 어려움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도와주고 싶지 않음
		피해의식	도움이나 조언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속상함 남한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황당함
		앞뒤가 다름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달라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조심스러움	눈치가 보임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편하게 하지 못함 상처를 건드릴까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함 그들의 형편에 맞춰줘야 함
과민반응		무심코 한 이야기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당황스러움	
실망감	의존적인 태도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함 정부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이없음	
	돈에 민감	돈을 너무 밝히니까 싫음	
	탈북자들 간의 반목	탈북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변화된 측면	교류를 통한 변화	긍정적인 관심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탈북자에 대한 관심 증가 탈북자를 통일의 자원으로 생각함
		동질감	직접 경험해보니 우리와 다르지 않음 우리와 같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며 다르지 않다고 느낌
		친숙함	속내를 털어놓으니 가깝게 느껴짐 자주 접하니 익숙하고 편해짐
	교류를 통한 깨달음	거리두기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를 느낌 필요 이상으로 하지 않음
		준비 필요	북한이나 탈북자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함 먼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다가가야 함
		노력	가볍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함
		교육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 보이는 모습들로 인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게 느끼는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남한에 와서도 북한식으로 하려고 하고,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나 자녀교육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탈북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해서 아는 것과 나중에 우리가 듣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참여자 11)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해도 처음부터 확 열려고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편하게 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참여자 16)

“탈북민들은 남한이 같은 민족인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은연 중에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할 때 그걸 느껴요.”(참여자 12)

“그쪽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월등한 위치에 있어요. 부부가 같이 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남편이 한마디 하면 부인은 꺾소리를 못해요.”(참여자 17)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북한에서 했던 양육방법대로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처벌하고, 거의 아동 학대나 폭력 수준으로

아이들을 때리면서 키워요.”(참여자 20)

북한이탈주민들끼리만 어울리거나 현실 인식이 빈약한 것도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였다. 남한주민이 생각하기에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끼리만 어울리면서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현실을 모르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낯설게 느끼고 있었다.

“그룹에서 동질감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네트워크, 유대관계가 엄청 강해요. 같은 탈북민이라는 것만으로 결속이 되나 봐요.”(참여자 14)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지식을 습득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늦죠.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접촉해야 하는데.”(참여자 17)

“직장에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많죠.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못 주는 건 아니고, 한국 사람도 취업했으면 그 정도 받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장을 다니기에는 기능이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거죠.”(참여자 19)

“남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어도, 자기가 조금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해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데.”(참여자 20)

불편감

주제군 4는 ‘불편감’으로서,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 ‘언어의 차이’, ‘행동방식의 차이’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편치 않게 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큰 목소리와 거친 말투, 대놓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으며, 북한말을 알아듣기 어렵고, 북한이탈주민이 간단한 단어들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단호한 언어를 써서 상처를 받은 일이 몇 번 있어요. 돌려서 말하는 것이 없고 아닌 건 딱 확실히 아닌 거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 받을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참여자 16)

“우리나라 직장에서는 윗사람이나 동료가 잘못을 해도 그것을 잘 지적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 요인이 되더라고요. 이 문화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을 참고 넘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야 조직도 화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출하니깐.”(참여자 19)

“목소리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아마기가 세다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때는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을 서로 던지는데 다들 잘 넘어가더라고요. 좀 무섭더라고요. 그게 농담인지 한 이십 분 정도

도 관찰하고 알았어요.”(참여자 11)

“북한말이라고 하는데 중국말 같더라고요. 말이 되게 빠르고, 알아듣기도 힘들었어요. 언어의 차이가 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참여자 11)

“우리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사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못 알아듣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참여자 20)

북한이탈주민이 아무 때나 전화를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행동방식을 보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었으며, 자기주장만 앞세우거나 아무렇지 않은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돌변하는 모습을 접하면서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되면 아예 안 돼요. 우리는 연락이 안 되면 사과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딱 이예요. 갑자기 딱 연락을 끊어버려요.”(참여자 13)

“시도 때도 없이 새벽 두 세 시에 전화를 해서 자기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시간 안 지키는 것을 크게 미안해하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늦을 것 같으면 상대방에게 시간을 늦추자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늦게 오고.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안 해요.”(참여자 17)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아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죠.” (참여자 11)

“이야기를 하다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싸우고 막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부딪치니까 상대하기가 힘들죠.”(참여자 15)

거부감

주제군 5는 ‘거부감’으로서, ‘우리의 선입견’, ‘피해의식’, ‘앞뒤가 다름’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의 도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반공교육을 받고 컸잖아요. 약간 좀 섬찝하죠. ‘북한 얘기를 해도 되나?’하는 고민도 했었고, 말하기도 조심스러웠고.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오면 저런가? 북한에서 와서 저런 식으로 일하나 보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참여자 15)

“도와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것을 요구할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북한은 뇌물 사회잖아요. 뭘 주면은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순수한 마음으

로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참여자 14)

“우리는 좋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은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참여자 20)

“피해의식이 있죠. 자기가 북한이탈주민이라서 뭔가 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있죠.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잘 못 보는 거예요.”(참여자 19)

“앞에서는 자신이 못났다고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며 울던 분이 나가면서는 싸악 웃으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참 가까워지기 힘들고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고, 제 말이 다 맞다고 말하고는 뒤돌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해요.”(참여자 20)

조심스러움

주제군 6은 ‘조심스러움’으로서, ‘눈치가 보임’, ‘과민반응’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남한주민은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편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의 형편에 맞춰야 하며, 무심코 한 이야기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는지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만나면 주로 일상적인 얘기들을 하죠.

북한에 관한 질문들은 조심스럽게 한 두 번씩 하는 정도... 다들 북한이 너무 싫으니까 온 줄 알았는데, 그 스토리나 이유가 다르고, 정치사상도 다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면은 그들 안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지고,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싶고. 정치 얘기할 때 좀 민감해요.”(참여자 11)

“개인적인 것을 깊이 알고 싶지만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는 편이에요.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협하고 좀 상처가 될까봐 그런 부분을 많이 차단하고 웃고 떠들면서 정말 놀기만 하거든요.”(참여자 16)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내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나눠서 내자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만나면서도 너무 비싸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피곤하고 귀찮아도 해줘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기다려줘야 할 것 같고, 이해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참여자 18)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말인데, 그게 상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는 조심스러워졌죠. 말하는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거기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참여자 12)

실망감

주제군 7은 ‘실망감’으로서, ‘의존적인 태도’, ‘돈에 민감’, ‘탈북자들 간의 반복’의 주제를 포

함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행태로 인해 남한주민이 느낀 실망감과 관련되어 있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정부의 지원금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생각했으며, 돈을 너무 밝히고, 탈북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대충 물어가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들 그냥 밥 먹여주고, 집 주네’ 이런 느낌이 들죠. 너무 대놓고 지원금만 받으려고 해요. 본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나오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돈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 돈을 받는다’더라하면서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참여자 15)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와서 그런지 한국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나 도움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참여자 20)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이 하나 걸리면 되게 예민해지시더라고요. 돈이라면 위아래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세요.”(참여자 13)

“북한사람끼리 더 서로를 모해해서 정착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도와야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어 먹어야 되고.”(참여자 13)

교류를 통한 변화

주제군 8은 ‘교류를 통한 변화’로서, ‘긍정적인 관심’, ‘동질감’, ‘친숙함’, ‘거리두기’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면서 변화된 측면들과 관련되어 있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나기 전에는 통일에 관심도 없었고, 통일해서 같이 산다는 것이 마냥 좋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나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에 자체에 대한 정이 생기면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마음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참여자 16)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넓게는 탈북민이나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열게 되었어요.”(참여자 18)

“그들이 통일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듣고, 북한에 대해 이해한다면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위에 있는 분들과 밑에 있는 분들이 융화되는데 가장 좋은 것들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1)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면서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주 접하면서 편하고 익숙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 이틀 쯤다 보니까 탈북자도 사람인거예요, 탈북자는 탈북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계속 쯤다보니까 그냥 사람이예요.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참여자 14)

“그 친구들은 사상이 이상할꺼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나이대 친구들이 하는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비슷한 고민들을 나눴어요. 사상이 무엇이건 어떤 교육을 받았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해요.”(참여자 12)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애랑 친해져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때부터 잘 지냈어요.”(참여자 14)

“자주 놀러오니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탈북자를 대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참여자 14)

“처음에는 몰랐는데, 장기적으로 갈수록 차이점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참여자 13)

“처음 봤을 때는 ‘도와줘야겠다. 불쌍하다’는 느낌이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냉정하게 일로써 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참여자 15)

교류를 통한 깨달음

주제군 9는 ‘교류를 통한 깨달음’으로서, ‘준비 필요’, ‘노력’, ‘교육’ 등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면서 깨닫게 된 내용들이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며,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하고, 가볍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관계 형성에 좋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분들에 대한 마음과 이해 같아요. 만일 탈북자들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이해를 못했다면 은연 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북한에서 온 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납득이 되지만, 아니라면 되게 충격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참여자 13)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허물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는대로 이야기하고, 일반 친구들 만날 때랑 똑같은. 남한사람이 처음에

는 먼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탈북민들한테 뭘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낮설고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죠.”(참여자 12)

“처음에는 너무 조심하다보니까 오히려 많이 친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다보니까 더 친해질 수 있고, 그 분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참여자 20)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한사람 북한사람 선을 그어놓고 보는 거잖아요.”(참여자 15)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1)

“초기에 도와주고 딱 그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래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원을 퇴소하면 하나센터에서 2주 정도 교육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한국사회를 알기가 너무 어렵거든요.”(참여자 2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 교류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은 모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변화된 측면을 지니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도출된 주제군은 '교류를 통한 깨달음'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며, 서로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방 뿐 아니라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 행동에 대해 성찰하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교류를 통한 변화'는 남한주민에서만 독립된 주제군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에서 교류 경험의 주제군으로 나타난 경험 내용들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동일한 내용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서로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거리감과 신뢰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달랐다. 남한주민은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가는 경향이 짙고,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관심과 배려를 '따뜻함'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남한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되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양자 간의 관계 형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난 주제군들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교류 과정에서 경험한 서로의 문화나 생활방식의 차이, 상대방에 대

한 인식 등과 관련된 것으로,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경험들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교류를 통해 서로의 언어나 언어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게 '거리감'을 느끼는데 비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불편감'을 느꼈다. 북한이탈주민은 낮은 언어와 환경, 언어표현 방식을 접하면서 남한사람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들과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남한주민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어울리기 불편한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다.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방식, 생활양식의 차이도 서로에게 다른 경험으로 지각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태도변화나 의사소통 방식을 접하면서 '불신감'을 느낀 것에 비해, 남한주민은 '거리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의 대인관계 방식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게 자신의 속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데 비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을 자신들과는 다르거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 교류를 시작하거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운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부담스러움' 때문이었고, 남한주민의 '조심스러움' 때문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모두 교류의 필요성과 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를 지니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부담스러움과 남한주민의 조심스러움으로 인해 서로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억울함'과 남한주민의 '실망감'도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면서 관계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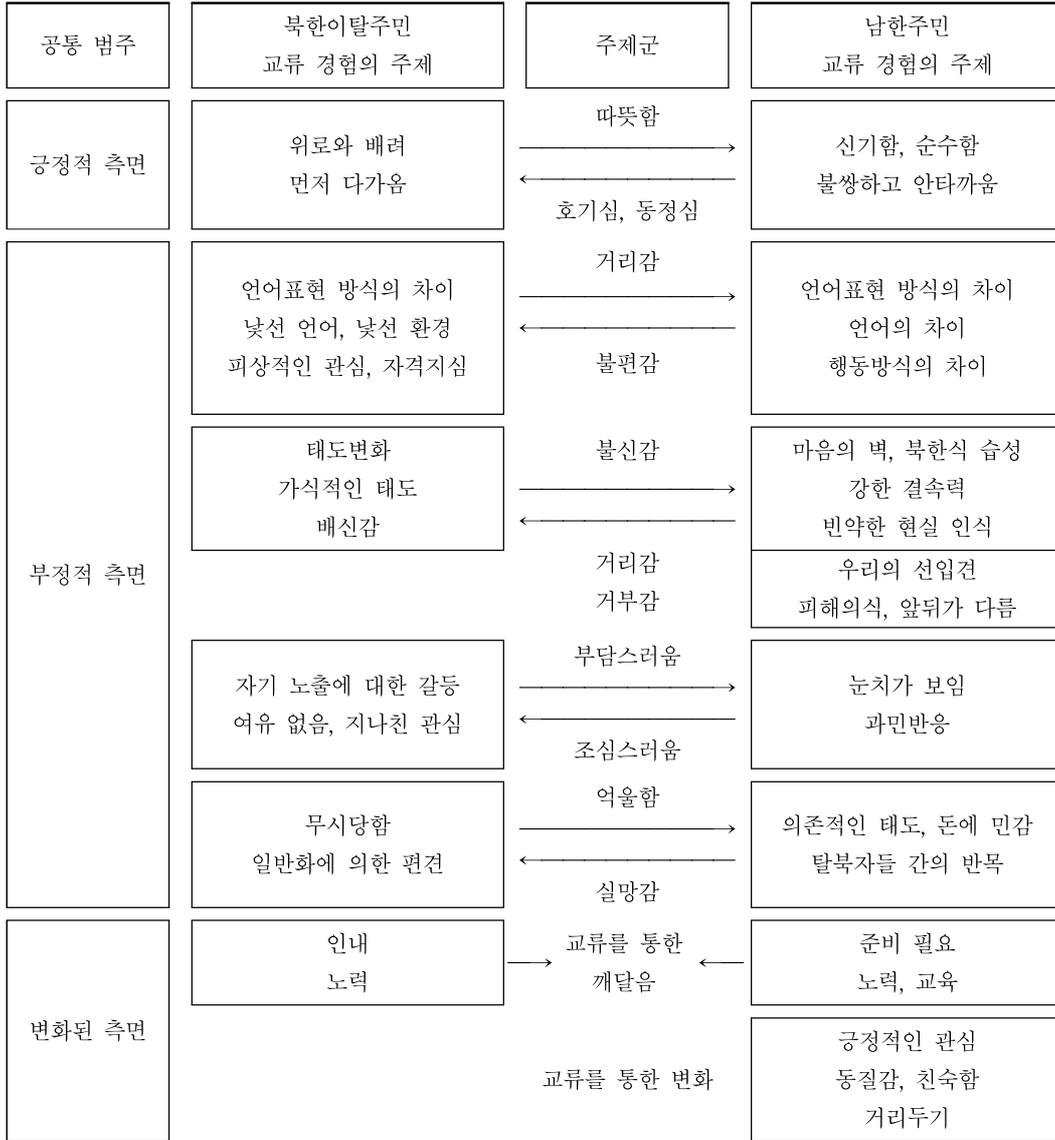


그림 1.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 교류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들이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여겼다. 이에 비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의존적이고 서로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

과 부정적인 측면, 변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과의 교류에서 따뜻함과 거리감, 부담스러움, 불신감,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주민은 ‘따뜻하지만 멀게 느껴지고, 가까이 지내기에는 부담스러우며, 믿을 수 없고, 억울함을 안겨주는 사람들’로 경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서 호기심과 동정심, 거리감, 불편감, 거부감, 조심스러움, 실망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남한주민에게 북한이탈주민은 ‘신기하고 동정이 가지만, 멀게 느껴지고, 불편하며,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대할 때 실수하지 않을 지 조심해야 하며,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유해숙, 이현숙, 2014; 윤인진, 채정민, 2010)을 일부 지지해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과의 교류 속에서 따뜻함을 경험했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들 역시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다가갔으며,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모두에게 상대방과의 교류 경험은 복잡적이고 양가적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거리를 좁히기가 힘들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류를 통해 변화한 내용들은 서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리가 좁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들에는 유사한 측면도 있었지만, 그 경험들을 야

기하는 요소나 내용은 차이를 보이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개방을 촉진하는 것은 남한주민의 관심과 태도였다. 남한주민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를 북한이탈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두려운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유해숙, 이현숙, 2014).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먼저 다가갈 때 북한이탈주민은 수용 받는 느낌을 경험하고, 마음을 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다가가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은 ‘호기심’과 ‘동정심’이었고,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게 되면 ‘친숙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보이는 호기심과 동정심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부담스러움’ 주제군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남한주민이 자신들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고, 위로의 말에서 상처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부담스러움’은 남한주민에게 ‘조심스러움’으로 다가왔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알고 싶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언행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위와 같은 주제군들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 기대 및 욕구가 상충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지만,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에 비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관계 형성이나 친밀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대와 욕구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에 대해 '거리감'을 경험하는 내용들도 달랐다. 북한이탈주민은 언어나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 낮은 환경 등으로 인해 남한주민과의 교류에서 거리감을 느꼈다. 이에 비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태도나 북한식 습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강한 결속력, 빈약한 현실 인식 등을 보면서 거리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방하고, 남한의 방식을 따르기를 바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남한주민들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양자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각기 다른 측면이 관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면 남한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 수 있다. 남한주민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이나 태도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력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지 않으면 거리감을 좁히기 어렵다. 이러한 변화는 남한주민과의 접촉이나 교류를 통해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유해숙, 이현숙, 2014; 윤여상 등, 2005; 이재민, 황선영, 2008)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도 친하게 지내는 남한 이웃이 드물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상호 교류를 통한 변화의 기회들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개방을 촉진하고, 서로 간에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남한주민과

자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와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신감'과 '거부감' 주제군으로 도출된 내용들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부정적인 상호 인식(유해숙, 이현숙, 2014; 윤인진, 채정민, 2010)의 원천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TV 등을 통해 간첩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졌다고 느끼면서 남한주민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그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다고 하였다. 그 이면에는 6.25전쟁과 적색공포증(오수성, 1993; 이장호, 1993)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관념이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연장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격변기에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를 남으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양문수, 이우영, 윤철기, 2013)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실재하는 현실에서 개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서로를 수용하거나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질감' 주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반복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서로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언어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남북한 간의 언어나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이나 직업 적응,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다(박은숙, 2014; 조정아, 정진경, 2006). 그러나 언어 및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경험은 달랐다. 남한주민에게는 ‘불편함’이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게 하였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대화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도 마찬가지로이다.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느낀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에둘러 말하는 것을 속내를 숨기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은 거칠고 악센트가 높은 북한식 말투나 큰 목소리와 맞물려서 의사소통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사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교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 친밀감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언어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억울함’과 남한주민의 ‘실망감’은 내용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며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남한주민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정부의 지원금으로만 생활하려고 하는 의존적인 측면이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 양상은 직업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자주 접촉해

야 하는 남한주민들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과 접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양계민, 정진경, 2005)와 일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직업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는 남한주민들에서는 그러한 경험들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느낀 실망감은 일부에 한정된 것일 수 있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북한이탈주민을 접하면서 경험한 감정이나 생각을 전체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화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Jost와 Banajo(1994)가 지적하였듯이, 다수 집단은 기존의 사회 구성과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비주류 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보이는 것에 비해 소수 집단은 어느 범주 혹은 집단에 소속되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에서 인간적 모욕과 무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자존감의 저하, 인간관계에서의 회피나 배제, 채용 상의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남한주민이 경험한 ‘불편감’이나 ‘거부감’과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내용으로 도출된 ‘불신감’과 ‘억울함’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교류할 기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들과의 교류가 불편하게 여겨지고,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은 다수 집단인 남한주민과 접촉은 더 많이 하게 되지만, 남한주민이 가지는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불신감과 억울함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주제군인 '교류를 통한 깨달음'은 북한 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에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주민들의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지만, 이러한 경험을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었으며,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어울리고 남한사회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안인희, 2012; 유해숙, 이현숙, 2014; 이종은, 2008)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편견으로 인해 오해와 상처를 겪기도 하지만 희망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한주민들 역시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있는 그대로 그들을 수용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다. 또한, 통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 증가, 동질적인 측면에 대한 확인 등과 같은 변화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한주민들은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에서 자신들과는 다른 점을 많이 경험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를 느끼면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한주민에서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에서는 '교류를 통한 변화'가 독립된 주제군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남한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기하게 여기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지만, 막상 교류를 하고 나면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간이 대부분 5년 미만이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변화를 경험하기에는 기간이 짧았거나 남한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남한에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나타난 점(조영아 등, 2009)을 고려하면, 정착 기간에 따른 교류 경험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관계 형성 및 교류를 촉진하는 요인은 상호 접촉, 관심과 배려, 자기 개방, 그리고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서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 선입견 등은 서로의 교류를 방해하고 오해와 편견을 초래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은 복잡적이고 양가적이며,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상충되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노동자와의 접촉을 통한 인식이나 태도 변화가 접촉의 양 뿐 아니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접촉이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질 경우에 이주민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오계택, 이정환, 이규용, 2007).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상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하고 우리사회에 적응시켜야할 대상으로 보는 정책이나 상담적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동화에 대한 압력이 커질수록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심리적인 부담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억울함'과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느끼는 '실망감'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보호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대상으로 관점을 바꾸고,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도 촉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상담기관이나 상담자는 정책 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문제해결을 돕는 전문 상담자의 역할 외에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촉진자이자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상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방식, 상담자에 대한 기대 등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주민과의 교류 경험이 상담자의 관계에서도 확장되어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이 보이는 관심을 동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조언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상담자에 대해 '나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다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은 상황에서 상담자가 했던 조언을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직업적으로 만났던 일부 참가자들은 '본인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모든 도움을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상담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심리상담사의 역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기를 기대하면서 강한 의존성을 보인다(권수영, 최정현, 2011; 노인숙, 조선희, 2012). 또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충고하며,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지시적이고 직면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조영아, 2009). 본 연구에서 드러난 북한이탈주민의 직설적인 의사표현 방식도 상담자에 대한 기대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의 태도는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상담 초기에는 어느 정도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의 조언이나 충고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시기와 정도를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상담자는 지지적이고 공감적이되, 동정한다는 인상을 주

는 것은 관계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상담자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소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는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남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계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대인지각 특징에 대해 교육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적응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양자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생활하면서 겪는 대인관계 갈등의 본질이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자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에서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하고 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남한주민에 대한 상담,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종사자들에게 대한 교육, 갈등예방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문화적 이해는 상담자의 소진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교류에서 경험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에 따른 교류의 질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이러한 교류 경험들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들의 심리내적 상태나 외부 환경들이 이러한 교류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의 변화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78%가 여성(통일부, 2015)이어서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표집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탈북 남성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탈북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교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교류 경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교류 과정이나 경로, 맥락, 교류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교류의 질이나 깊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 경험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권수영, 최정현 (2011).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문상담사 상담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12(5), 1683-1702.
- 김성준 (2009).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엽, 최지현, 류원정 (2012). PTSD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343-367.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김희경, 신현균 (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07-724.
- 노인숙, 조선희 (2012).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의 심리적 소진의 원인 탐색. 정신간호학회지, 21(4), 303-310.
- 민성길, 전우택, 김동기 (2006). 탈북자의 남한에서의 삶의 질. 신경정신의학, 45(3), 269-275.
-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 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7, 3-74.
- 박은숙 (2014).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2012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안인희 (2012). 탈북 새터민의 남한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s), 97-115.
- 양문수, 이우영, 윤철기 (2013).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7(2), 131-158.
- 오계택, 이정환, 이규용 (2007). 이주 노동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오수성 (1993). 적색공포(red complex)의 본질과 심리적 작용.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81-91, 6월 10일. 서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회의실.
- 유시연 (200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혜숙, 이현숙 (201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0, 325-365.
- 윤여상, 윤인진, 이금순, 안혜영, 서윤환, 엄홍석 (2005). 새터민 정착실태 연구. 서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 윤인진, 채정민 (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 을 중심으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이수정, 양계민 (2013).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 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1), 395-421.
- 이장호 (1993). 남북통일의 문화심리적 장애요인. 한국심리학회 대외심포지움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 81-91, 6월 10일. 서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회의실. 125-133.
- 이재민, 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6), 61-84.
- 이종은 (2008). 남한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직장유지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 2(1), 33-61.
- 이태희 (2003).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문제 해결능력,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조영아 (2009).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상담에 대한 요구도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85-310.
- 조영아 (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97-222.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조정아, 정진경 (2006).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 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논총*, 15(2), 29-52.
- 주은주 (2010). 새터민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2015).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의 역할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main.do>. 2015.3.20.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and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150-38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 Miller, D. L. (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3), 124-130.
- Jacob, A. G. (1994). Social integration of Salvadoran refugees. *Social Work*, 39(3), 307-312.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 Takeda, J. (2000). Psychological and economic adaptation of Iraqi adult male refugee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6(3), 1-21.
- Polkinghorne,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R. S. Valle and S. Hall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Exploring the breadth of human experience*(pp. 41-60). New York: Plenum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15. 09.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1. 14

게 재 결 정 일 : 2016. 02. 29

A qualitative study on contact experience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Heekyung Kim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contact experience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Participants included 10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and 10 South Koreans in contact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terview data was analyzed by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se data was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positive aspects', 'negative aspects', and 'changed aspects'. With regards to North Korean defectors, the themes clusters of positive aspects was 'warmth', negative aspects were 'distantness', 'distrustfulness', 'aggrievedness', 'burdensomeness', and changed aspects was 'hindsight from the contact experiences'. In the case of South Koreans, the theme clusters of positive aspects were 'curiosity' and 'compassion', negative aspects were 'distantness', 'discomfort', 'unacceptableness', 'carefulness', 'disappointment', and changed aspects were 'change from the contact experiences' and 'hindsight from the contact experiences'. Results showed that the contact experiences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had the compositive and ambivalent propertie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Contact experiences, Prejudice, Phenomenological study